



모무스

# 자동차 카산드라

미래에서 온 목소리-카산드라-가 카마게돈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를 질책한다. 우리는 바르셀로나의 타우리노스, 베를린의 방화범들의 반(反)자동차 행동주의에 대해 배운다. 하지만 카산드라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제발, 계속 움직이시오!

\*\*\*

나는 22세기 초반에서 당신들에게 글을 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의 한 가능한 버전에서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여러분의 특정한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경고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여러분의 방식을 바꿀 수 있고,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미래를 무효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나는 카산드라와 같은 경고의 순수한 힘으로 나 자신과 내가 알고 있는 끔찍한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인류 전체에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면 그 희생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자동차가 마을과 도시를 장악하도록 내버려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물론 당시에는 그저 불가피한 진보의 행진처럼 보였다. 초기의 신중함-초창기의 운전자들 앞에는 빨간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앞서 걸어야 했다-이후에는 놀랍도록 제약이 없었다. 새시에 장착된 이 갑옷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한 마을,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가? 오직 베니스(심지어 여기서도 미래주의자들과 슈퍼스튜디오 그룹 같은 익살꾼들은 운하를 콘크리트로 덮자고 제안했다)와 히드라, 알리쿠디 같은 섬들만이 바퀴의 침략에 맞서 버텼다. 그리고 이제, 시인 로버트 로웰이 한때 말했듯이, 여러분의 세계 전역에서 “야만적인 노예 상태가 기름을 타고 미끄러져 지나간다.”

자동차 중심주의의 불길한 정치적, 심리적 함의는 처음부터 명확했어야 했다. 초기 고속도로와 그 위를 달릴 자동차들을 만든 히틀러와 헨리 포드가 노골적인 파시스트였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석에 올라 문을 광 달고 시동을 거는 것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방식에서는 일종의 악마가 가슴속에서 솟아올라 세계관을 장악해버렸다. 운전이 재미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한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됐다. 그것이 사악한 태도들을 전면에 드러냈다는 사실 말이다. 게으름, 이기심, 조바심, 경쟁심, 속 좁음, 자랑, 어리석은 흥분, 무모함, 특권의식, 지나가는 세상을 더럽히려는 경향, 동료 생명체와 자연에 대한 공감 부족 같은 것들 말이다.

경관에 미친 영향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고 해로웠다. 장소들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통과하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걸어도 다니도록 만들어진 도시들은 자동차가 질주하고, 기어가고, 주차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도저로 밀려났다. 고속도로에 아무리 많은 차선을 추가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정체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교외는 끝없이 확장되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서비스조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 밀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동차의 성공 자체가 바로 그것의—우리의—가장 큰 비극이 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지방으로 변하고, 지방이 군살이 되면서 인간의 신체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이제 그 안을 차지하는 부풀어 오른 인간들을 수용하기 위해 곳곳에서 크기가 커져갔다. 이는 전형적인 악순환이 되었고, 군비 경쟁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자동차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꿀수록, 세상은 더욱 자동차에 매달렸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백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중 적어도 5분의 1은 어린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통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더 크고 강한 차량에 투자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위협하는 자동차가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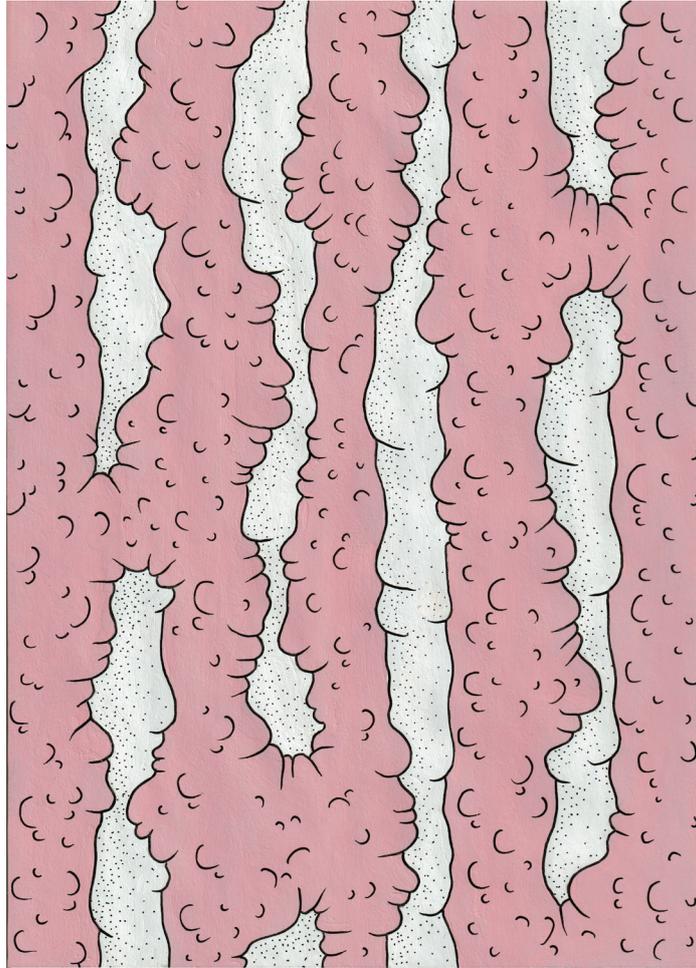
반자동차 정책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로비와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에 의해 신속하게 좌절되고 낙인찍혔다. 우파들은 그러한 정책들을 운전에 대한 전쟁 또는 더 넓게는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좌파들은 더 외진 곳, 대중교통 연결이 취약한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반자동차 정책이 본질적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장애인들을 공격하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선의에서 시작된 디젤 연료에 대한 환경세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지방의 좌우파로 이루어진 분노한 연합체, 즉 질레 조네와 충돌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지구에 어떤 최종적인 대가가 치러질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가능한 한 최저 비용으로 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했다. 마크롱은 결국 양보하고 세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파리의 사회주의 시장 안 이달고는 더 영리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녀는 2023년에 파리 시민들이 전기 공유 스쿠터 금지를 원하는지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시민들은 찬성했고, 그해 9월에 해당 이동수단은 파리 거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2024년 2월의 두 번째 주민투표로 이어졌다. 시민들이 파리 중심부에서 SUV를 더 많이 보고 싶은지 아니면 더 적게 보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 탱크 같은 자동차들이 둔하고, 치명적이며, 공해를 유발하고 “사고를 유발한다”고 규정한 포스터 캠페인 덕분에 투표는 SUV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SUV는 스쿠터와는 달리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다. 일어난 변화라고는 도심의 비거주자 주차 요금이 인상된 것뿐이었다. 이미 파리 중심부에서 SUV를 소유하고, 주차하고, 운전할 만큼 부유한 사람들은 거의 불편을 겪지 않았고, 시청은 생태적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세수도 늘릴 수 있었다.

2020년대 후반 바르셀로나에서는 더 이상주의적인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타우리노스라 불리는 온건한 테러리스트 집단 덕분이었다. 이 이름은 황소처럼 고집 센 성격을 뜻하는 동시에 1969년 영화《이탈리안 잡》을 떠올리게 했다. 이 영화에서는 피아트 자동차 회사를 공격하려는 컴퓨터



전문가 금괴 도둑들이 교통신호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토리노 시 전체가 마비되는 장면이 나온다. 타우리노스는 바르셀로나의 교통신호등—이미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더 관대했던—에 침투하여 보행자 신호가 점진적으로 더 오래 녹색으로 유지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격분한 운전자들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는 처음에는 보행자들의 위험을 증가시켰지만, 곧 도시의 도로에 너무나 큰 혼란을 가져와 교통이 반영구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분통을 터뜨리며 멈춰 서게 되었다. 이제 보행자들은 꿈쩍 못하게 된 자동차들 사이를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에서는 더 폭력적인 양상이 펼쳐졌다. 자동차 방화는 항상 독일 수도의 노동절 전통이었지만, 곧 연중행사가 되었다. 좌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자동차를 불태웠고, 우파들은 좌파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며, 방화광들은 단순히 불을 좋아해서 자동차를 불태웠고, 보험 사기꾼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동차를 불태웠으며, 강제 퇴거당한 스쿼터들은 자신들이 살던 거리의 자동차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소수의 급진적 생태주의자들은 불타는 지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동차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1세기 중반 이뤄진 비행 전기 자율주행 차량(일명 드래곤카)의 발전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차량 사이의 영토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때는 이미 피해가 끝난 후였다. 한 세기에 걸친 화석연료 배출은 지구의 기온, 공기, 물, 얼음의 흐름에 돌이킬 수 없는 인위적 변화를 일으켰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었고 새로운 건조 기후는 농업을 망가뜨렸다. 그 결과로 일어난 기근은 대규모 이주를 초래했고, 이는 다시 가혹한 정치적 반발을 촉발했으며, 마침내 파괴적인 일련의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다. 자동차에 대한 인간의 사랑—여러분 시대의 연약하고 부패하며 근시안적인 정치 체제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던—은 인류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다.

이 에세이의 서두에서 나는 나 자신을 트로이의 여사제 카산드라에 비유했다. 안타깝게도, 아폴론이 그녀에게 준 선물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는 분명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따라서 그녀의 선견지명은 인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똑같이 잔인한 아폴론이 내 선물에도 카산드라의 딜레마를 변주해 심어놓은 것 같다. 내게는 자동차와의 맹목적 사랑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경고할 기회가 주어졌다. 어쩌면 내 말들이—2020년대 초반에 갇힌 독자들에게는—여러분이 이미 지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명백함 때문에 진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끔찍한 미래에 대한 내 통찰이 여러분의 정치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이 자명함이라는 특성이다. 내가 너무나도 옳은 말을 하고 있기에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 에세이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아무도—읽지 않는 스위스 예술학교 웹사이트에 그럴듯하게 디자인된 PDF로 출판되었다는 불편한 현실도 있다. 여러분은 자동차에 대한 카산드라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녀의 주장을 듣고서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폴론은 우리를—나와 카산드라를—이런 식으로 저주했을까?  
불멸의 존재들은 우리가 할아버지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즉,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미래로부터 온 이 에세이의 독자들은 나의 할아버지들이다. 나는 여러분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여러분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 내가 살고 있는 끔찍한 세상에 도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나 자신을 희생할 수도 없다. 여러분 행동의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은 자동차를 타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여행할 것이다. 천천히, 더럽게, 피할 수 없이.  
내 목소리는 하나의 속임수였다. 시간의 화살은 한 방향으로만 날아간다.



### 저자 소개

모무스는 1960년대에 태어난 스코틀랜드인 닉 커리의 예명이다.  
 그는 약 40장의 일렉트로닉 포크 음악 앨범을 발표했고, 《와이어드》에서  
 《무스》에 이르는 잡지들에 저널리즘 글을 기고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투어 가이드”로서 갤러리와 박물관에서 퍼포먼스를 펼쳤고, 여섯 권 가량의  
 사변적 소설을 출간했다.



편집: 잉고 니어만

편집: 로잔나 맥래프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모무스,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